혼자서 매일 경제 쇼츠 2편 — AI 비서가 대본부터 업로드까지

전국민 AI 활용사례 공모전 시즌3 · 분야: 업무 생산성 · 채널 «리치엠 경제n서핑»

93편	39,253회	2회	≈0원
두 달간 공개	누적 조회	사람 개입/일	편당 추가비용

① 어떤 상황이었나

미국 주식 정보를 매일 받아 보지만, 그것을 정리해 남에게 전하려면 하루 몇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본업이 따로 있는 1인에게 «매일 영상 두 편»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2026년 8월 1일, AI에게 «이걸 매일 쇼츠로 만들 수 있을까?»라고 물은 것이 시작입니다.

② 어떤 AI를 어떻게 썼나

미니PC 한 대에 AI 에이전트(Claude)를 두고, 쇼츠 제작 전 과정을 단계별로 맡겼습니다. 사람은 두 번만 개입합니다.

- 새벽 AI 편집회의: 전날 시장 데이터와 채널 성과(편별 조회수·시간당 조회)를 읽고 그날 두 편의 주제를 정합니다.
- 대본: 공개 데이터(주가·지표)만으로 40~50초 대본을 씁니다.
- 자동 검증: 숫자 읽기, 날짜, 상승/하락 방향, 맞춤법을 AI가 규칙표로 한 번 더 검사합니다(초기에 나온 숫자 오독·날짜 오류를 규칙으로 만들어 재발을 막음).
- 목소리: PC에서 도는 무료 로컬 음성합성(Qwen3-TTS)으로 가상 앵커 3명이 읽습니다.
- 화면: 파이썬 코드가 신문 지면 콘셉트로 차트·표·자막을 그려 세로 영상(1080×1920)을 만듭니다.
- 사람 확인 ①: 완성 영상이 텔레그램으로 오면 «올려» 한마디.
- 업로드·공개: 유튜브 예약 업로드, 12시·16시 자동 공개, 첫 댓글과 블로그 글까지 자동.
- 사람 확인 ②: 다음 날 아침 성과 보고를 보고 방향을 한 줄 지시.

③ 결과, 무엇이 바뀌었나

- 두 달간 쇼츠 93편 공개, 누적 조회 39,253회, 구독 106명(2026-09-29 기준, 채널 «리치엠 경제n서핑»).
- 사람이 쓰는 시간: 하루 확인 두 번, 몇 분.
- 비용: 음성·렌더를 로컬에서 돌려 편당 추가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.

④ 나만의 방식·개선 포인트

- AI에게 «알아서 잘»이 아니라 «검증 규칙»을 줍니다. 틀린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를 규칙으로 바꿔 다음부터 자동으로 걸러냅니다.
- 판단(무엇을 만들지, 올릴지)은 사람, 반복은 AI. 관문을 두 곳으로 줄여 품질과 시간을 함께 잡았습니다.
- 성과 데이터가 다시 다음 날 회의로 들어가는 순환 구조라, 잘 된 형식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.
- 같은 방식을 온라인 판매 가격 관리·송장 입력 자동화에도 쓰고 있습니다.

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

세 단계면 됩니다.

1) 매일 반복하는 일을 순서대로 적는다.

2) 각 단계를 AI에게 맡기되, 틀리면 안 되는 것(숫자·날짜 등)은 검사 규칙으로 함께 준다.

3) 사람은 최종 확인 한 번만 남긴다.

특별한 장비 없이 미니PC 한 대와 AI 에이전트, 무료 로컬 음성합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[윤리·책임]

- 공개 시장 데이터만 쓰며, 영상마다 «투자 권유가 아님»을 밝힙니다.
- 앵커는 가상 인물이며 실존 인물의 얼굴·목소리를 합성하지 않습니다.
- 유료 정보의 원문을 옮기지 않고, 착안점만 참고해 공개 데이터로 다시 확인합니다.
- 숫자·날짜 자동 검증과 사람의 최종 확인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나가지 않게 합니다.

첨부: 실제 제작된 쇼츠 1편(mp4), 사례 요약(PDF)